

[종합]

J프로젝트 승인 심의 해 넘기려나

중도위 "초송지구 간척지 농식품부 입장 통보 못받았다" 23일 심의 또 연기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J프로젝트) 승인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던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가 지난 9월 4일과 25일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여기에 J프로젝트 부지 중 해남군 산이면 일대 일부 주민들이 22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J프로젝트 철회와 간척지 장기저가 임대 요구'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한편 J프로젝트 참가 기업들의 법정자본금 납입도 지연되고 있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현재 승인신청 대상인 J프로젝트 3개 지구(삼호·구성·초송) 중 초송지구 간척지에 대한 협의 내용을 문광부에 통보해오지 않아 오는 23일 열기로 했던 중도위 J프로젝트 심의 자체가 사실상 연기됐다.

문광부 관계자는 "초송지구(20.5km) 간척지를 전남도에 양도할 것인지, 농민들에게 장기 저리로 임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농식품부가 최종 입장을 통보해오지 않아 J프로젝트 개발계획 심의를 위한 중도위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도위에서는 J프로젝트 3개 지구의 개발을 추진 중인 3개 특수법인(SPC)이 제출한 개발계획 승인신청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농림부는 3개 지구 중 J프로젝트 시범지구로 포함되지 않은 초송지구 간척지 활용방안을 놓고 현지 여론 수렴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끝나지 않아 협의내용을 문광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남군 산이면 농민단체와 농민 등은 22일 오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철회와 간척지를 농민들에게 장기 저가로 임대해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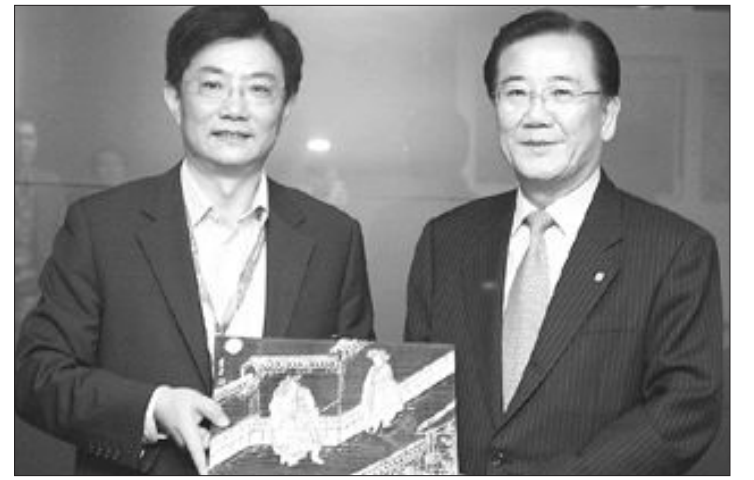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개발계획 승인신청 대상인 3개 지구 참여기업들의 법정자본금 납입도 지연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와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구성지구는 총 법정자본금 880억원 중 172억원이 납입된 상태며, 초송지구는 600억원 가운데 150억원이 납입됐다. 그러나 5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삼호지구는 450억원 중 고작 14억원만을 납입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은 납입금 구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F1 대회는 한·중 관계 새 도약 계기"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9일(현지시각) 상해 F1대회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장란 상해F1대회조직위원장을 만나 F1 대회 상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의 한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한국과 중국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잇달아 개최하게 된 것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난 19일 '2008 F1 그랑프리 대회'가 열린 중국 상하이 방문, 장란 상하이 F1대회 조직위원회장과 면담을 갖고 "중국 상하이에 이어 2010년 F1 대회를 대한민국 전남이 개최하게 된 것은 아시아의 변용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하이가 F1대회의 경험을 (전남에) 들려주면 2010년 전남 F1대회 역시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며 중국 측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장란 조직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은 자동차산업 강국으로 자

동차 기반시설이 중국보다 잘 마련돼 있어 F1대회에 감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박 지사와 함께 전남

회에 참석한 국회 F1특위 위원장인 박종근(한나라당) 의원은 "한국 정부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함께 2010년 전남 F1대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형기기자 redplane@

균특회계 예산도 수도권·영남 편중

7조1천억 중 3조7천억 지원

지방균형발전은 목표로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도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희대(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권역별 균특회계 배정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균특회계 예산은 7조1천454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이 전체 예산의 27.6%인 1조9천919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영남이 25%인 1조7천730억원을 지원받았고 호남지역은 1조6천

222억원(22.8%), 충청(9천509억·12.7%), 강원(4천382억·6.2%), 제주(4천709억·5.7%)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균특 회계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52.6%)을 넘는 셈이다.

영남권의 경우 지난 2005년 1조3천340억(31.8%)의 균특 회계 예산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 2006년 1조5천185억(32.4%), 2007년 1조6천119억(31.0%) 등을 지원받았다. 반면 호남권 투입 규모는 지난 2005년 1조2천485억(29.8%), 2006년 1조4천169억(29.9%), 2007년 1조4천920억(28.9%) 등에 그쳤다. /김지을기자 dok2000@

보성 울포·영광 백암 해수욕장 등

전남 연안 침식 우려 수준

전남지역 일부 해수욕장의 백사장 면적이 줄어드는 등 주요 해안 침식이 우려되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국 의원은 20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해안별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지난해 해안침식 모니터링을 실시한 전남지역 12개 해안지역 가운데 5개소가 해안침식이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연안 보호와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추진중인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전남지역에서는 216개 대상 지역 가운데 20개소만 사업이 완료됐을 뿐"이라며 "22곳은 여저전 진행중이고 174곳은 사업 추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전국 120개소에 대한 해안침식 모니터링을 실시, 20개소에 대해서는 해안침식 상황이 심각한 최하위 D등급 판정을 내렸고 34개소는 우려할만한 수준인 C등급을, 57개소는 B(보통)등급, 9개소는 A(양호)등급으로 판정했다.

해안침식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백사장이 급격히 사라지는 등 피해가 가속화될 우려가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히 "연안 보호와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추진중인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전남지역에서는 216개 대상 지역 가운데 20개소만 사업이 완료됐을 뿐"이라며 "22곳은 여저전 진행중이고 174곳은 사업 추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전국 120개소에 대한 해안침식 모니터링을 실시, 20개소에 대해서는 해안침식 상황이 심각한 최하위 D등급 판정을 내렸고 34개소는 우려할만한 수준인 C등급을, 57개소는 B(보통)등급, 9개소는 A(양호)등급으로 판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 기업 비업무용 땅 사준다

6조원 투입 ... 민간 건설업체 조성 택지도

정부가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 만의 일로 정부가 투입할 자금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토지공사와 민간 주택업체가 맺은 공동 주택용지 분양계약의 해약을 허용할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 조성한 공동 주택용지도 매입해 줄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22일게 열리는 위무용 토지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 만의 일로 정부가 투입할 자금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토지공사와 민간 주택업체가 맺은 공동 주택용지 분양계약의 해약을 허용할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 조성한 공동 주택용지도 매입해 줄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건설 업체의

필 전망이며 기업의 신청을 받아 토지공사가 매입에 나선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주는 것은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에 이어 2번째. 10년전에 토지공사가 2조6천억원어치의 땅을 매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이 매입 규모가 더 많다.

정부는 또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자금은 적게는 1조원, 많게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이 조성한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입 금액의 기준을 감점평가금액에 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매입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와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여수 박람회 22일~23일 국제 심포지엄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2~23일 여수에서 제1회 여수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로제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과 버날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사무총장, 슬래지저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

정래권 외교교통부 기후변화대사 등 국제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조직위원회는 이틀간 해양과 기후 변화, 여수프로젝트, 여수세계박람회 기본 계획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오늘의 국감

▲행정안전위원회 = 광주시(오전 10시·광주시청 회의실), 광주경찰청(오후 3시·광주경찰청)

빛의만평

- 김중두



'경제팀'을 해체 해보면 어떨지요?!

이봉화 차관 사의

"살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안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이 오늘 오전 구두로 사의 표명을 했고, 입장 표명은 본인 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그동안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여야 정치권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왔으나 사의 표명을 미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차관이 오는 23일 국회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차관 신분으로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청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예금주: (주)광주일보사

• 직통: (062) 227-9600
• FAX: (062) 227-9500

산행 안내
12면 게재

임차공고

1. 단차: 1.1톤(소형차) : 여구간(077-494112-15) 6명(2명)
2. 중차: 1.5톤(중형차) : 여구간(077-494112-15) 8명(2명)
3. 중차: 1.5톤(중형차) : 여구간(077-494112-15) 8명(2명)
4. 임차공고: 1.5톤(중형차) : 여구간(077-494112-15) 8명(2명)
5. 계약: 1.5톤(중형차) : 여구간(077-494112-15) 8명(2명)
6. 계약: 1.5톤(중형차) : 여구간(077-494112-15) 8명(2명)
7. 계약: 1.5톤(중형차) : 여구간(077-494112-15) 8명(2명)

문의: (062) 681-5575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
◎택지 및 상업지역 토지 문

【토지종개】
▶ 수완지구 택지 및 상업지역 최대 물량 확보

【아파트 중개】(신속처리)
▶ 우미, 모야, 현진, 코오롱, 대주 등 분양권 물진 최대 확보

【공정】
▶ 전남 합평군 나산면 국도점
대지(공장지): 1030 건물: 320평
용적률 2억 5천만 원 1억5000만원

【수완지구 송원빌딩 임대 11월준공】
▶ 1층 12평~40평 3.3㎡ 당 1500만원
▶ 부동산 판매시설 2층~5층 각 42평 용도:병원, 학원, 독서실, 당구장 등(분할가능) 3.3㎡당 250만원 부터~

정직한 중개문화를 선도하는
월드공인중개사사무소
☎ 062) 952-0047, 954-0031

2009학년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

모집과정 모집인원 지원자격

석사학위 과정	문화예술인 및 기획전공	00명	가. 응시계열 출신학과(계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문화관광전공	00명	나. 지원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09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계		30명	

전형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시	합격지발표
석사학위과정	2008.11.4~11.11	1차: 2008.11.27 2차: 2008.12.4~5	2008.12.23

문의

- 행정실: 062) 530-4062~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culture.chonnam.ac.kr) 참조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상속한정승인공고

광 산정자(470816-2663814)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정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제정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부터 2개월내에 제정자는 승인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관주지법민선 제1회 2008-12274

공고인: 김일남, 김미애, 김은희, 김동영, 김병수, 김미라

한정승인수리일: 2008. 10. 14
공고기간: 2008. 10. 21 ~ 2008. 12. 20
연락처: 전라남도 원도군 금강면 육신리949-4
김미라 (010-9835-2100)

부동산

▶ 팀장 및 임원 구함 (금호동소재)
▶ 업계 최고 대우

☎ 062) 681-5575

주유소매매

• 화순읍내 국도변 25m×10m코너
• 대지 1,186㎡ 건물 47㎡(케노피포함 2층)
• 탱크 180D/4기, 주유기 5기
• 매가 11억5천만원(용지4억1천만원)조정가

☎ 011-413-6051(주·야)